

화순전남대병원 '신약 개발 패러다임 전환' 시동

의생명연구원·K-HOPE, 심포지엄 개최
오가노이드 기반 비임상 평가체계 논의
정부·연구기관·산업계, 실용화 등 모색

화순전남대병원이 K-HOPE 플랫폼을 중심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 전략을 제시하며 오가노이드(organoid) 기반 비임상 평가체계 구축 논의 본격화했다.

12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 미래홀에서 'K-HOPE로 시작하는 신약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K-HOPE 사업단이 주관하고 전남바이오텍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순생명사회포럼 등이 후원한 가운데 오가노이드 분야 교육·연구,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규제 동향과 산업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국가 사업인 K-HOPE(Korea-Hwasun Oncology Precision Biomedicine & Experimental Trials)는 스마트임상시험기술개발연구의 일환으로, 한국형 암 특화 디지털 스마트 임상 시험 플랫폼을 구축해 차세대 신약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약 개발에 있어 비임상 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임상 실증을 위한 국가 오가노이드



이완식(왼쪽 여섯 번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의료진과 심포지엄 발제자, 연구자, 정부·지자체·산업계 관계자들이 최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열린 'K-HOPE로 시작하는 신약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공)

드 적격성 평가체계 구축'을 부제로 삼았다.

이는 기존 동물실험 중심의 비임상 연구가 가진 한계를 넘어 사람 유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정밀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환자 유래 조직을 기반으로 실제 인체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동물모델보다 약물 반응과 독성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개발 성공률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상 연계 데이터와 통합된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기초·비임상 연구 결과를 실

제 임상 적용 및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실용적 전주기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오인재 의생명연구원장은 "AI·데이터·오가노이드 기반 기술이 신약 개발 혁신을 이끄는 전환점이라고 있다"며 "K-HOPE를 통해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고 국가 차원의 오가노이드 적격성 평가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완식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오가노이드는 신약 효능 평가와 독성 예측,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 등 정밀의료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며 "연구 성과가 임상과 산업 현장, 환자 진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전남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재인증

보건복지부 평가...3년간 자적 유지

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시행 '2026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를 최종 통과하며 재인증증을 획득했다.

12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적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전남대병원 IRB는 2023년 첫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연구 심사의 질적 수준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재인증에 성공했다. 이

로서 전남대병원은 오는 2029년 4월27일까지 3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재인증은 전남대병원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가 국제적 수준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입증된 성과다.

정신 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은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하며 수많은 첨단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연구의 윤리적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준 높은 임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IRB는 임상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로서 연구자 교육과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병원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수희기자

조선대병원,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8층 세미나 D실에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운영을 본격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심의위원회(Data Review Board·DRB)는 병원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를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 시 절차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심의하는 전문 위원회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AI)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병원이 축적한 임상데이터의 연구 활용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조선대병원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법적·윤리적 기준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DRB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연구용 데이터의 가명화 적정성 심의 ▲데이터 활용 목적 및 범위의 타당성 검토 ▲원의 반출 시 보안성 평가 ▲데이터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등이다. /기수희기자

가정의 달 5월...가족 생애주기별 건강 살펴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원장

건강검진·가족력 점검·예방접종 등
조기 발견할수록 완치·관리 가능성 ↑
"통합적 예방 전략으로서 큰 의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검진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족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생활습관과 유전적 위험요인이 맞물려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점검이 중요하다.

최근 건강검진 수검률은 원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4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5.6%, 암 검진 수검률은 60.2%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1.5%, 4.4% 증가한 수치이나, 전문가들은 수검률도 중요하지만 가족력 등 개인별 고위험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광주전남지부) 원장은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검진 항목은 다르고, 건강 이상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 및 관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족 단위 건강관리는 질병 치료를 넘어 생활습관을 함께 교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통합적 예방 전략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위험요인 각각...'맞춤형 점검' 필수
생애주기별 건강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질환과 위험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아 비만 여부와 시력 저하, 성장 발달 상태, 자세 및 척추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장년층은 업무와 육아 등으로 건강관리가 뒤로 밀리기 쉬운 만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체중 변화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층은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주요 암 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암 검진 외에도 골밀도, 근감소증, 인지기능 변화 등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을 추가로 챙겨야 한다. /정리=기수희기자

특히 암은 개인의 생활습관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 즉 가족력의 영향이 크다.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암 병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일반적인 권고 시기보다 앞서 검진과 추적 관찰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동일 암 발생률은 평균 5.0%였으며, 암 종별로는 위암이 8.1%로 가장 높은 가족력 연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의 건강을 함께 챙길 때는 단순히 현재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력과 생활습관, 과거 검진 이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AI 영상검진 시스템' 조기 발견 가능성 ↑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고위험군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진 장비의 정밀도와 판독 역량 역시 중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AI 기반 영상검진 시스템을 통해 조기 발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AI 기반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은 흉부 X선, 유방촬영, 위내시경 등 주요 영상검사에서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의료진의 판독을 보완해 육안으로 놓치기 쉬운 미세한 이상 소견까지 정밀하게 잡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흉부 영상이나 유방촬영처럼 세밀한 병변 확인이 중요한 검사에서 AI는 정확한 진단에 기여하며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이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예방접종 여부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여행 국가와 일정에 따라 필요한 백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소 출국 2주 전에는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국가 기본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하며, 성인은 여행지의 특성을 고려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 등의 접종을 검토해야 한다. 고령층은 기저질환과 면역 상태에 따라 독감, 폐렴 구균, 코로나19 등 정기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

김동규 원장은 "가족 건강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이상의 영역"이라며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각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가족력과 생활습관에 맞는 건강 점검 및 관리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기수희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